

4. 마을의 특징

1) 효자들

조선시대에 남북으로 왕래하는 상인들의 대로(大路)가 이 마을의 들을 가로질러 나 있었는데 상인들의 패싸움으로 살인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살치들이라 하였다가 효자각(孝子閣)이 세워진 이후에는 효자들이라 하였다고 한다.

2) 북수동 성황당(城隍堂)

성황신을 모시는 곳으로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엄선된 제관이 마을의 무병 무사와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다가 1990년 이후 폐지하였다.

3) 이율동 성황당(城隍堂)

400년~500년쯤 된 큰 느티나무를 성황신으로 모시는데 이 마을은 특이하게 삼신위(三神位)이다.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제관을 엄선하여 3일 전부터 금기(禁忌)하고 목욕제계(沐浴齊戒)하여 마을의 무병 무사와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제14절 오산1리(烏山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7번 국도 서편에 현종산 지맥(支脈)이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덕신1리와 경계를 이루고 현종산이 바라보인다. 북쪽은 오산2리며, 마을 중앙에 오두산(烏頭山)이 가로 놓여있다. 마을회관은 2010년에 건립되었으며, 2010년에 오산보건진료소가 조성되었다.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가 건립되어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갯초들

소하천변에 있던 갯벌을 제방을 축조하여 농경지로 개간하여 들이 되었다 하여 갯초들이라 한다.

2) 백옥당(白玉堂)

1730년경에 영해(寧海)에서 온 백씨(白氏)라는 선비가 이곳에 백옥당(白玉堂)이라는 정자를 짓고 훈장(訓長)을 지냈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3) 오두산(烏頭山)

마을 뒷산의 작은 맥(脈)이 마을 중앙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는데 그 산 모양이 까마귀머리 모양과 같다 하여 오두산이라 부른다.

4) 오천(烏川)

1520년경에 김해 김씨(金海金氏)인 상희(商喜)라는 사람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하며, 마을 뒷산이 까마귀머리 모양과 같고, 앞 냇가에 까마귀가 많이 서식하였다 하여 오천(烏川)이라 불렀다 한다.

자연부락명이 「원내」인데 「월내(越川)」가 변한 이름이라 하며 「웃원내」, 「안원내」, 「밖원내」가 있다.

3. 가구 분포

총 84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평산 신씨(平山申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안동 김씨(安東金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충주 유씨(忠州劉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城隍堂)

이 마을에는 성황당이 두 곳에 있는데, 바다 쪽에 있는 성황당은 ‘할매당’으로, 풍어(豐漁)를, 마을 서쪽에 있는 성황당은 ‘할배당’으로, 풍농(豐農)을 각각 기원하는 곳으로,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 마을 제사를 지내고 있다.

2) 오산항(烏山港)

1960년 이후에 축항공사를 실시하여 방파제 100m가 축조되었고, 1990년도에는 1종항으로 승격되었다. 죽변항과 후포항의 중간 지점에 있어 풍랑으로 위급할 때는 어선대피소의 역할을 하며 각종 해산물(海産物)의 물양장으로 이용되고 있다.